

내원경로 분석을 통한
전문과목으로서의
구강내과의 역할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정 태 용

내원경로 분석을 통한
전문과목으로서의
구강내과의 역할

지도 최 종 훈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정 태 용

정태용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년 6월 일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있기까지 시종일관 세심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최종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인의 부족함을 아낌없는 열정과 풍부한 지식으로 일깨워 주신 김종열 교수님, 사려깊은 판단력으로 조언을 해주신 안형준 교수님, 김성택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신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항상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유지원, 강진규 선생님을 비롯해 구강내과학교실 선생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저의 어머니와 동고동락을 같이하고 있는 저의 병원 직원들과도 작은 기쁨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으로써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는 저의 가족, 아내 김지영과 사랑하는 민석이와 다현이에게 아빠로써의 미안함과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며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5년 7월

저 자 씀

차 례

표 차례	ii
국문 요약	iv
I. 서 론	1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4
1. 연구 대상	4
2. 연구 방법	4
III. 연구 성적	5
1.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	5
2. 응답자의 의뢰율 분석	9
3. 자의내원한 환자의 응답자의 내원경로 분석	14
IV. 총괄 및 고찰	15
V. 결 론	21
참고 문헌	22
영문 요약	24

표 차례

표 1. 연령분포	5
표 2. 지역적 분포	6
표 3. 영역별 분포	7
표 4. 증상 이환기간	7
표 5.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의 증상 이환기간	8
표 6. 연조직 질환 환자에서의 증상 이환기간	8
표 7. 의뢰기관 영역분석	9
표 8. 치과영역에서의 의뢰기관 분석	10
표 9. 의과영역에서의 의뢰과목 분석	10
표 10.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의 의뢰과 분석	11
표 11. 연조직 질환 환자에서의 의뢰과 분석	12

표 12. 두통 환자에서의 의뢰과 분석	12
표 13. 의뢰된 응답자의 경유병원 수 분석	13
표 14. 자의내원한 응답자의 경유병원 수 분석	14

국문 요약

내원경로 분석을 통한 전문과목으로서의 구강내과의 역할

전문의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는 차별된 전문성을 가지고 증상의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과목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제도는 국민의료적인 측면에서 임상 각 분야에 있어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 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한편, 구강내과는 악안면 통증,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를 다루는 전문과목으로서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구강내과학적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현대화 사회로 갈수록 현대인들은 대도시 중심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장애, 구강내 연조직 질환, 삼차신경통과 같은 신경병변 등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한 초진환자 3,7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뢰율 및 내원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내과에 의뢰된 전문 진료분야로는 구강안면통증, 구강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로 나타났다.
2. 구강내과에 의뢰된 환자의 비율은 58.51%로 과반수를 넘는 환자들이 의뢰되었

다.

3. 의뢰환자 중 의뢰기관의 영역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83.23%로 가장 많았고 의과 및 한의과 영역에서 의뢰된 경우는 16.78%를 보였다.
4. 자의내원한 환자 중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서 구강내과 전문분야에 대한 사전 검색 및 주변의 권유에 의해 내원한 환자들이 응답자의 30.52%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강내과는 대부분 의뢰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치과영역 뿐 아니라 의과영역에서의 의뢰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치과영역에서는 일반의들이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진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과학 분야에서는 구강내과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질환을 구강내과와 협진하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과목으로서 구강내과학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전문치의제도 인력수급 및 이의 기반이 되는 전공의의 정원책정에서 시장적 접근 및 규범적 접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전문치의제, 구강내과, 의뢰율, 내원경로

내원경로 분석을 통한 전문과목으로서의 구강내과의 역할

<지도 최 종 훈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정 태 용

I. 서 론

전문의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는 차별된 전문성을 가지고 증상의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과목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제도는 국민의료적인 측면에서 임상 각 분야에 있어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보험 수가제의 합리적 개편,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 의료산업의 지원·육성, 의료보험조합간의 재정불균형의 해소, 의료보험관리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 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 높아진 의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의료공급측면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와 생활방식의 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이종구, 1995). 또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치과진료의 분

야별 전문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질병별 치료영역을 특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진료선택권 등 치과의료 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규정 제정하여 2004년부터 전공의 수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치과의사 전문의를 배출할 예정이다.

한국의 전문의제도가 시행된 것은 1952년 11월 12일로 당시 10명에게 전문과목 표방 허가증을 발부하면서부터이다. 전문의제도의 변천을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외과가 성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로 구분됐고 병리과가 임상병리과와 해부병리과로 구분되는 등 전문과목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여 앞으로도 전문의 과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그대로 전문치의제도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치과의 경우, 현재 전문치의제도가 10개 과목으로 시작될 예정이나 전문의제도에 서처럼 전문화, 세분화의 경향으로 전문과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의학의 경우에는 전문과목의 분류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장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치의학의 경우에는 행위별로 과목이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이재봉, 1998) 치과 분야의 경우 세분화 전문화 되는 진료과목에 대한 분류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앞으로 전문과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협회나 학회차원에서 전문과목 분류기준(치료영역 및 내용) 포함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구강내과는 악안면 통증,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를 다루는 전문과목으로서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구강내과학적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현대화 사회로 갈수록 현대인들은 대도시 중심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장애, 구강내 연조직 질환, 삼차신경통과 같은 신경병변 등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는 정확한 지식 없이 치과뿐만 아니라 의과 등 여러 병의원을 내원하게 되고, 이에 따

라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오랜 기간동안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원에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런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구강내과로 의뢰되어 오는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들의 내원경로를 조사하여, 전문과목으로서 구강내과의 역할과 비중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향후 전문치의제도에서 구강내과학 전문의의 수요조절 등 정책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한 초진환자 3,7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재초진 환자는 제외되었다.

2. 연구 방법

가. 설문조사

초진이 시행되기 전에 환자의 전신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을 시행시 설문지 하단에 추가로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항목은 본과에 의뢰여부, 의뢰된 병원의 종별, 본과에 내원하기 전 경유한 병원 수, 인터넷 혹은 방송매체 등에서 본과에 대한 정보습득여부 등으로 이루어졌다.

나. 의무기록 조사

설문조사의 항목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의무기록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항목은 질병의 이환기간, 진단명을 조사하였으며, 진단명 및 진료분야를 토대로 측두하악장애, 구취, 연조직 질환, 두통, 신경학적 통증 및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로 분류하였다.

Ⅲ. 연구 성적

1.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

가. 성별분포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2,393명으로 64.55%, 남성이 1,314명으로 35.45%를 차지했다.

나. 연령분포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6.54세였으며, 연령분포는 10대 미만인 0.89%(33명), 10대가 18.10%(671명), 20대가 27.89%(1,034명), 30대가 16.21%(601명), 40대가 13.38%(496명), 50대가 10.63%(394명), 60대가 9.50%(352명), 70대 이상이 3.40%(126명)을 보였다(표 1).

표 1. 연령분포

AGE	Number(Percentage)
1-10	33(0.89)
11-20	671(18.10)
21-30	1,034(27.89)
31-40	601(16.21)
41-50	496(13.38)
51-60	394(10.63)
61-70	352(9.50)
71-	126(3.40)
TOTAL	3,707(100.00)

다. 지역적 분포

응답자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이 2,388명으로 총 응답자의 64.42%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는 864명으로 총 응답자의 23.31%를 차지하였다(표 2).

표 2. 지역적 분포

지역	Number(Percentage)
강원	39(1.05)
경기	864(23.31)
경남	45(1.21)
경북	38(1.03)
광주	9(0.24)
대구	12(0.32)
대전	19(0.51)
부산	27(0.73)
서울	2,388(64.42)
울산	1(0.03)
인천	136(3.67)
전남	14(0.38)
전북	24(0.65)
제주	14(0.38)
충남	37(1.00)
충북	21(0.57)
미상	19(0.51)
TOTAL	3,707(100.00)

라. 영역별 분포

영역별 분포로 분류하였을 때, 측두하악장애 환자가 2,277명으로 총 응답자의 61.42%, 연조직 질환 환자가 542명으로 14.62%, 두통 환자가 241명으로 총 응답자의 6.50%를 차지하였다(표 3).

표 3. 영역별 분포

	Number(Percentage)
측두하악장애	2,277(61.42)
연조직 질환	542(14.62)
두통	241(6.50)
neuropathic pain	101(2.72)
구취	85(2.29)
법의치과학 분야	59(1.59)
진단학 분야	402(10.84)
TOTAL	3,707(100.00)

마. 증상의 이환기간

전체 응답자 중 76.50%(2,836명)가 증상의 이환기간에 대하여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증상의 이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717명으로 응답자의 25.28%를 차지하였으며, 1-3개월이 14.21%(403명), 3-6개월이 10.12%(287명), 6-12개월이 8.60%(244명), 1년 이상 증상에 이환된 응답자는 1,185명으로 41.78%를 차지하였다(표 4).

표 4. 증상 이환기간

	Number(Percentage)
1개월 미만	717(25.28)
1-3개월	403(14.21)
3-6개월	287(10.12)
6-12개월	244(8.60)
1년 이상	1,185(41.78)
TOTAL	2,836(100.00)

이중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는 증상의 이환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2,023건으로, 1

개월 미만인 579명으로 응답자의 28.62%를 차지하였으며, 1-3개월이 14.09%(285명), 3-6개월이 9.54%(193명), 6-12개월이 8.45%(171명), 1년 이상 증상에 이환된 응답자는 795명으로 39.30%를 차지하였다(표 5).

표 5.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의 증상 이환기간

	Number(Percentage)
1개월 미만	579(28.62)
1-3개월	285(14.09)
3-6개월	193(9.54)
6-12개월	171(8.45)
1년 이상	795(39.30)
TOTAL	2,023(100.00)

또한 연조직 질환 환자에서 증상의 이환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457건으로 이중 증상의 이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88명으로 응답자의 19.26%를 차지하였으며, 1-3개월이 15.97%(73명), 3-6개월이 13.35%(61명), 6-12개월이 8.75%(40명), 1년 이상 증상에 이환된 응답자는 195명으로 42.67%를 차지하였다(표 6).

표 6. 연조직 질환 환자에서의 증상 이환기간

	Number(Percentage)
1개월 미만	88(19.26)
1-3개월	73(15.97)
3-6개월	61(13.35)
6-12개월	40(8.75)
1년 이상	195(42.67)
TOTAL	457(100.00)

2. 응답자의 의뢰율 분석

가. 의뢰환자비율

전체 응답자 3,707명 중 58.51%(2,169명)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되어 본과에 내원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의내원한 응답자는 1538명으로 41.49%를 차지하였다.

나. 의뢰기관 영역분석

의뢰환자 중 의뢰기관 영역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1,429건으로 65.88%를 차지하였으며 의과기관에서 의뢰된 경우가 30.80%(668건), 한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13건으로 0.60%를 차지하였고, 기타로 법의치과분야와 관련되어 법원 및 법무사 등에서 의뢰된 경우가 59건으로 2.72%를 차지하였다(표 7).

표 7. 의뢰기관 영역분석

의뢰기관	Number(Percentage)
치과	1,429(65.88)
의과	668(30.80)
한의과	13(0.60)
기타	59(2.72)
TOTAL	2,169(100.00)

다. 치과영역에서의 의뢰기관 분석

치과영역에서 의뢰된 1,429건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서 의뢰된 경우가 917건으로 64.22%를 차지하였으며, 치과대학병원에서 의뢰된 경우가 22.34%(319

건), 대학병원 치과가 5.11%(73건), 병원 치과가 6.44%(92건)이었다(표 8).

표 8. 치과영역에서의 의뢰기관 분석

의뢰기관	Number(Percentage)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17(64.22)
치과대학병원	319(22.34)
병원 치과	92(6.44)
대학병원 치과	73(5.11)
기타	24(1.68)
TOTAL	1,429(100.00)

라. 의과영역에서의 의뢰과목 분석

의과에서 의뢰된 경우 668건을 분석한 결과, 심장내과, 심장외과, 소아심장과에서 의뢰된 건이 225건으로 33.68%, 정형외과에서 의뢰된 건이 109건으로 16.32%를 차지하였으며, 이비인후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13.02%(87건), 내과 8.38%(56건), 피부과 2.54%(17건)이었다(표 9).

기타는 그 외 신경과, 마취과 등 여러 과가 존재하였다.

표 9. 의과영역에서의 의뢰과목 분석

	Number(Percentage)
내과	56(8.38)
정형외과	109(16.32)
이비인후과	87(13.02)
피부과	17(2.54)
가정의학과	11(1.65)
심장내과/외과	225(33.68)
기타	163(24.40)
Total	668(100.00)

마.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의 의뢰과 분석

측두하악장애 환자 중 의뢰된 환자 1,171건을 분석한 결과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977건으로 83.4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형외과 8.71%(102건), 이비인후과 2.82%(33건)이었다(표 10).

표 10.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의 의뢰과 분석

	Number(Percentage)
치과	977(83.43)
내과	13(1.11)
정형외과	102(8.71)
이비인후과	33(2.82)
가정의학과	6(0.51)
한의원	6(0.51)
기타	34(2.90)
Total	1,171(100.00)

바. 연조직 질환 환자에서의 의뢰과 분석

연조직 질환 환자 중 의뢰된 환자 284건을 분석한 결과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237건으로 83.4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내과 4.93%(14건), 피부과 3.17%(9건), 이비인후과 2.82%(8건)을 차지하였다(표 11).

표 11. 연조직 질환 환자에서의 의뢰과 분석

	Number(Percentage)
치과	237(83.45)
내과	14(4.93)
피부과	9(3.17)
이비인후과	8(2.82)
가정의학과	2(0.70)
기타	14(4.93)
Total	284(100.00)

사. 두통 환자에서의 의뢰과 분석

두통 환자 중 의뢰된 환자 138건을 분석한 결과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107건으로 81.6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형외과 5.07%(7건), 한의원 4.35%(6건), 이비인후과 2.17%(3건)을 차지하였다(표 12).

표 12. 두통 환자에서의 의뢰과 분석

	Number(Percentage)
치과	107(77.54)
내과	2(1.45)
정형외과	7(5.07)
이비인후과	3(2.17)
한의원	6(4.35)
기타	7(5.07)
Total	138(100.00)

아. 의뢰된 응답자의 경유병원 수 분석

의뢰된 응답자 2,169명 중 내원병원 수에 관한 설문항목에 응답한 응답자는 2,045명이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1개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응답자가 1,419명으로 69.39%를 차지하였으며, 2개 병원을 경유한 응답자는 20.49%(419명), 3개 병원은 6.50%(133명), 4개 병원을 경유한 응답자는 2.00%(41명), 5개 0.64%(13명), 6개 이상을 경유한 응답자는 20명으로 0.98%를 차지하였다(표 13).

표 13. 의뢰된 응답자의 경유병원 수 분석

	Number(Percentage)
1	1,419(69.39)
2	419(20.49)
3	133(6.50)
4	41(2.00)
5	13(0.64)
6 이상	20(0.98)
Total	2,045(100.00)

3. 자의내원한 응답자의 내원경로 분석

가. 자의내원한 응답자의 경유병원 수 분석

자의내원한 응답자 1,538명 중 내원병원 수에 관한 설문항목에 응답한 응답자는 751명이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1개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응답자가 468명으로 62.32%를 차지하였으며, 2개 병원을 경유한 응답자는 25.70%(193명), 3개 병원은 8.12%(61명), 4개 병원을 경유한 응답자는 2.00%(15명), 5개 1.07%(8명), 6개 이상을 경유한 응답자는 6명으로 응답자의 0.80%를 차지하였다(표 14).

표 14. 자의내원한 응답자의 경유병원 수 분석

	Number(Percentage)
1	468(62.32)
2	193(25.70)
3	61(8.12)
4	15(2.00)
5	8(1.07)
6 이상	6(0.80)
Total	751(100.00)

나. 자의내원한 응답자 중 내원경로 분석

자의내원한 응답자 중 본과에 내원하기 전 다른 매체에 대한 사전 검색을 시행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540명 중 470명으로 응답자의 30.52%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을 한 응답자는 470명 중 56.60%(266명), 주변 지인에 의한 권유는 39.79%(187명), 텔레비전 혹은 신문에 의한 정보검색을 시행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3.61%(17명)이었다.

IV. 총괄 및 고찰

최근 치의학계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전문치의제의 도입 및 실행 방향에 관한 것이다. 전문치의제의 도입은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 국민에 대한 고도의 의료시혜 및 건강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의학과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치과의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해외 치과기술 협력 증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치의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고찰을 하면(손국호, 강현호, 이화연, 2001), 1951년 국민의료법과 1981년의 의료법에서 전문치의제도에 대하여 규정한 이후로 계속된 도입도가 있어 왔으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대립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던 중에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불실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1998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의 개정 등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준비와 부합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50차 치과 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안(이하 '가안'이라 칭함)을 의결하였다(치의신보, 2001).

전문치의제가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전문의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의의 수의 확립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의과계의 경우, 전체 의사 중 전문의의 비율이 86%로 선진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김용익, 1991; 송건용, 1991; 김병익, 1993; 김창엽, 1995; 보건복지부, 2003; 대한의사협회, 2003; 오석준, 2004; 조경희, 2005), 특히 과별수급의 불균형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이종구, 1995; 대한의학회,

1992, 1993; 대한의학협회, 1994). 전문의 배출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인 전공의 수가 요구되는 전문의 수에 대한 검토 없이 종합병원의 기초인력의 수요에 따라 책정되고 있어 과별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건상, 김진규, 2004). 물론 치과계의 경우, 전문치의의 수를 소수화를 표방하고 있어 일차진료인력과의 불균형에 관한 문제의 발생우려는 적을 수 있으나, 과별 전문의의 수급문제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구강내과에 내원한 신환을 분석하여 전문치의 중 구강내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할 진료영역에 대하여 알아보고 구강내과학의 전문성에 대한 고찰을 하여, 전문치의제 내에서의 구강내과학 전문의의 수급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고찰해 본다.

내원한 환자를 분석할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환자의 지역적 분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과 지리적 용이성이 있는 서울이 64.42%, 경기도 23.31%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본원으로 의뢰됨을 알 수 있었다(표 2).

증상에 따른 분포를 고찰해 보면 측두하악장애가 61.42%, 연조직질환이 14.62%, 두통 6.50%, 진단서, 신체감정, 연령감정을 위한 법의치과분야가 1.59%로 나타나 구강내과의 주된 전문진료영역이 측두하악장애 및 두통을 포함한 구강안면통증, 연조직질환, 구강진단분야, 법의치과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표 3).

응답자의 증상에 대한 이환기간을 보면, 1개월 미만과 1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1개월 미만은 25.28%, 1년 이상은 41.78%, 1-3개월이 14.21%, 3-6개월이 10.12%, 6-12개월이 8.60%의 분포를 보였으며(표 4), 특히 측두하악장애 및 연조직 질환자의 증상에 따른 이환기간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1년 이상의 이환기간이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경우 795명으로 39.30%, 연조직 질환 환자의 경우 195명으로 42.67%를 차지하였다(표 5, 6). 이는 1년 이상의 이환기간을 가진 환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구강내과의 진료영역에 해당되는 측두하악장애 및 구강 연조직 질환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만성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구강내과적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가 소수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응답자의 의뢰율을 분석해 볼 때, 타 기관에서 의뢰되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58.51%, 자의에 의해 내원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1.49%를 차지하였다. 의뢰율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는 것만으로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하는 척도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일반의들이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진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전문성에 대한 입증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뢰환자의 의뢰종별 분석을 고찰하면 치과가 83.2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의과기관도 30.80%로 이미 의과분야에서도 구강내과에 관련된 진료영역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이를 통해, 구강내과가 치과 분야에서는 물론 의과분야에서도 이미 전문과목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과에서 의뢰된 의뢰과를 분석해 볼 때, 측두하악장애나 구강 연조직 질환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 정형외과 29.49%, 이비인후과 17.75%, 내과 10.51%, 피부과 6.16% 등의 의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장내과/외과의 경우, 33.68%로 높게 나타남은 심장질환 환자와 같은 전신질환자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었고, 기타 신경과, 마취과 등 모든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의뢰됨을 볼 때, 이미 의과학 분야에서 구강내과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질환을 구강내과와 협진 하에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구강내과의 위상이 일반의적인 수위를 넘어섰음은 물론이고, 각 의과기관에서의 현실적인 전문성 요구의 수위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표 9).

치과기관에서 의뢰된 환자를 분석해 보면, 치과 및 치과병원 64.22%, 치과대학병원이 22.34%, 대학병원 5.11%, 병원 6.44%, 군병원 0.70%, 보건소 0.98%를 차지했다

(표 8). 이는 아직도 구강내과를 전공한 치과의사가 적은 치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구강내과 영역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증상에 따른 의뢰율을 분석해 본 결과, 측두하악장애의 경우, 치과 83.43%, 정형외과 8.71%, 이비인후과 2.82%이고(표 10), 연조직 질환 환자의 경우, 치과 83.45%, 내과 4.93%, 피부과 3.17%, 이비인후과 2.82%였다(표 11). 또한 두통환자의 의뢰과목을 분석해보면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81.6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형외과 5.34%(7건), 한의원 4.58%(6건), 내과 2.53%(2건)의 의뢰양상을 보이고 있었다(표 12). 이를 분석해 볼 때, 측두하악장애의 질병 특성상 일반 관절과 관련된 정형외과를 경유한 환자가 많음을 알 수 있고, 증상 특성상 귀와 관련된 증상으로 혼돈하여 이비인후과를 경유한 환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조직 질환 환자의 경우, 구강점막질환을 피부질환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피부과를 경유하거나, 아직도 치아를 제외한 구강 연조직 부위를 이비인후과 영역으로 여기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오히려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이 해당 질환의 전문적 진료가 구강내과임을 인식하게 되고 의뢰함은 구강내과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추론된다. 특히 두통의 경우, 최근에는 악안면 동통분야에서도 신경과 등 동통을 다루는 의과측과 협진하에서 두통 전문과목으로써 구강내과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의뢰된 응답자의 내원병원 수를 분석해 보면 1개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응답자가 69.39%를 차지하였으며, 2개 병원을 경유한 응답자는 20.49%, 3개 병원은 6.50%, 4개 병원을 경유한 응답자는 2.00%, 5개 0.64%, 6개 이상을 경유한 응답자는 0.98%를 차지하였는데 많은 수의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3). 이는 구강내과적 질환에 이환된 환자들이 여러 진료기관을 돌아다님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당하며, 적시에 치료되지 않아 만성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환자는 심적, 육체적 고통이 높아지고 이를 치료해야 하는 구

강내과 의사의 역할이 타 전문과목 의사에 비해 전문성과 숙련성은 물론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까지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자의내원한 응답자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표 14).

자의내원한 응답자의 분석을 보면 본과에 내원하기 전 다른 매체에 대한 사전 검색을 시행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540명 중 470명으로 응답자의 30.52%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을 한 응답자는 470명 중 56.60%(266명), 주변 지인에 의한 권유는 39.79%(187명), 텔레비전 혹은 신문에 의한 정보검색을 시행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3.61%(17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많은 환자들이 직접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의학적 정보를 습득하고 해당 전문과목에 내원하는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약 3년 전 대한 구강내과학회에서 전국의 11개 치과대학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의뢰율을 1차 조사한 결과 약 70% 정도를 보인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 그보다 의뢰율이 다소 감소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근 개원가의 진료 수준은 매우 높아졌고 많이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치과에 기본이 되는 보존, 보철, 치주 등에 대한 꾸준한 지식 습득과 임상 경험의 축적은 물론, 임플란트, 교정 등 소위 특정 신기술이라는 분야까지도 넘쳐나는 임상연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수준을 향상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진료이면서도 진료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난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과 보존학 중 복잡한 근관치료나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 중 지치발치와 같은 난발치 등은 대학병원으로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다. 이처럼 현재의 낮은 의료보험수가 체계 아래에서는 전문과목별 전문치의라 일부 비급여진료가 많은 인기과목으로 불균등하게 편중될 수 있으며, 전문의가 한쪽으로 치우쳐 전체 치과계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장문영, 2003).

이런 시점에서 치과계의 전문치의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올바른 대국민 구강보

건증진과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전문과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전문지식으로 일반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구강지료를 보다 정확하게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일반진료와 전문진료의 체계정립을 통하여 환자를 위한 일반진료와 전문진료의 협진체제가 명확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차진료인력과 전문의간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의학계에서도 전문의 배출의 수를 직접 결정하게 되는 전공의의 정원채정에서 시장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의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김건상, 김진규, 2004). 이에 치의학계에서도 각 전문과목을 담당할 전문치의의 진료영역의 확립 및 진료영역에 대한 수요 대 전문의의 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일차의료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의뢰율 등이 근간이 되는 재료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한 초진환자 3,7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뢰율 및 내원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내과에 의뢰된 전문 진료분야로는 구강안면통증, 구강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로 나타났다.
2. 구강내과에 의뢰된 환자의 비율은 58.51%로 과반수를 넘는 환자들이 의뢰되었다.
3. 의뢰환자 중 의뢰기관의 영역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83.23%로 가장 많았고 의과 및 한의과 영역에서 의뢰된 경우는 16.78%를 보였다.
4. 자의내원한 환자 중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서 구강내과 전문분야에 대한 사전 검색 및 주변의 권유에 의해 내원한 환자들이 응답자의 30.52%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강내과는 대부분 의뢰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치과영역 뿐 아니라 의과영역에서의 의뢰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치과영역에서는 일반의들이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진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과학 분야에서는 구강내과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질환을 구강내과와 협진하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과목으로서 구강내과학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전문치의제도 인력수급 및 이의 기반이 되는 전공의의 정원채정에서 시장적 접근 및 규범적 접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건상, 김진규: 전문의 인력수급과 대한의학회의 입장. 대한병원협회지 3-4월호, 38-47, 2004

김병익: 전문의 인력공급의 정책과제, 전문인력 수급계획 및 정책과제에 대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1993.

김용익: 전문의 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전문인력 수급계획 작성을 위한 세미나 결과 보고서. 대한의학회, 1991.

김창엽: 전문의제도와 의사인력 구성의 적정성. 가정의학회지 제 16권 제 1호, 1995.

대한의사협회, 회원실태조사보고서, 2003.

대한의학협회, 전문의 제도개선 특집, 대한의학협회지, 1994.

대한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1992.

대한의학회, 전문의 인력수급 계획수립 워크숍 결과보고서, 1992.

대한의학회, 전문의 인력수급 및 정책과제에 관한 세미나, 199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3.

손국호, 강현호, 이화연: 치과전문의 제도의 나아갈 방향 모색. 대한치과보철학회지 39권 4호, 2001.

송건용: 전문의 수급계획 작성방법론. 전문인력 수급계획 작성을 위한 세미나 결과 보고서. 대한의학회, 1991.

오석준: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현황 및 시사점. 대한병원협회지 3-4월호, 31-37, 2004.

이재봉: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추진의 역사와 전문과목으로써의 치과보철학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보철학회지 36권 4호, 1998.

이종구: 전문의제도 개선논의의 필요성과 그 방향. 가정의학회지 제 16권 제 1호, 1995.

장문영: '치과전문의제' 뜨거운 감자로 부활. 개원 11월호, 2003

조경희: 의료전달체계의 방향. 가정의학회지 제 26권 제 4호 별책, 485-489, 2005.

치의신보, 2001. 4. 28. 제1087호, 3면 이하.

Abstract

The analysis of patients in Oral medicine and the evaluation of oral medicine as a special field

(Directed by Prof. **Jong-Hoon Choi**, D.D.S., M.S.D., Ph.D.)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ae-Yong Chung, D.D.S.

Special Practitioner exists based on the need for special fields that are required to manage difficult patients with specialized skills distinguished from General practitioner. The purpose of dental specialist system is to manage patients who are not treatable by general practitioner by training doctors specializing in one specific field, thereby, enhancing health of the public.

Oral Medicine deals with orofacial pain, oral soft tissue disease, forensic dentistry, oral diagnosis. In these days, living environments of city life bring about increase in stress which ultimately lead to increase in preval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 oral soft tissue disease, neuropathies such as trigeminal neuralgia, and hence, the number of patients seeking help of those symptoms tend to incr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ate of referrals and the routes of patients seeking help by investigating 3,707 patients who visite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from August, 2004 to

April, 200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types of disease referred to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were orofacial pain, oral soft tissue disease, forensic dentistry, oral diagnosis.
2. The rate of referrals was 58.51% which implies that more than half of the patients visiting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were referred.
3. The types of institution which made referrals were analyzed, and as a result, dental clinics made most of the referrals with the rate of 83.23%, while that from medical or oriental medical institutions was 16.78%.
4. Among the patien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on their own, 30.52% gained the information about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from internet and mass media, and from neighbors.

From the above results, most of the patients visiting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were found to be referred not only from the field of dentistry but also from the field of medicine. These suggest that Oral Medicine manages patients who are not treatable by general dental practitioners, and medical specialists tend to cooperate with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to manage diseases associated with Oral Medicine. Therefore, the role of Oral Medicine can be considered to be important as a special field,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considered when working out a policy of Dental specialist system on demand and supply of residents in the future.

Keywords : Dental specialist system, Oral medicine, the rate of referrals